

광주시장 지지도 강운태 서·남·북구, 이용섭 동·광산구서 우세

광주시장 다자대결

차기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5명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강운태 광주시장이 29.1%의 지지율로, 26.2%를 얻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오차범위내에서 경합을 벌이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어 가칭 '안철수 신당' 측 후보인 윤장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(12.2%), 민주당 강기정 의원(5.8%), '안 신당' 측 후보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(5.2%) 순이었다.

강 시장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59.9%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, 지역별로는 서구(38.0%)와 남구(32.0%)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은 지지를 얻었다. 또한, 이 의원의 지역구인 광산에서도 29.0%의 지지율을 얻으며 31.1%의 지지율을 보인 이 의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연령대별로는 20·30대(33.1%)와

20·30·50대 강운태, 40·60대는 이용섭 민주당 지지층 강한 응집력·안신당은 흔들

50대(29.7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고, 남성(26.5%)에 비해 여성(33.5%)의 지지도가 더 높았다. 이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24.4%의 지지를 얻었지만, 의외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35.5%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.

또한, 자신의 지역구인 광산구(31.1%)와 동구(31.8%)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, 40대(30.0%)와 60대 이상(30.4%)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 특히 남성(33.9%)의 지지율이 여성(13.7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윤 공동위원장은 북구(15.4%)와 남구(14.0%)에서, 50대(15.9%)와 남성(15.9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.

장 교수는 동구에서 13.9%의 두 자릿수 지지를 얻었을 뿐 모든 지역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고, 연령대별에서도 50대에서만 두 자릿수인 10.7%의 지지율을 얻었다.

강기정 의원은 성별·연령별, 지역별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. 이번 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민주당 지지층 10명 중 9명(89.1%)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견고한 응집력을 보인 반면 가칭 '안철수 신당'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 42.6%는 민주당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.

'안 신당' 지지층에서는 윤 공동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27.5%로 가장 높았지만, 이 의원과 강 시장을 각각 23.2%와 16.2%의 지지를 얻었다.

전남지사 다자대결

전남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1.3%의 지지율을 얻으며 선두를 달렸다.

이어 같은 당 주승용 의원(16.9%)과 이낙연 의원(12.2%)이 뒤를 쫓고 있고, 가칭 '안철수 신당' 측 인사인 김효석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(11.4%), 민주당 김영록 의원(5.1%) 순으로 나타났다.

다만, '아직 잘 모르겠다'는 지지 유보층이 33.0%로,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아직까지 차기 전남지사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.

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(42.9%)와 고향인 진도(48.8%)를 중심으로, 무안(42.2%)·신안(31.5%)·화순(32.7%) 등에서 30% 이상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. 주 의원은

대부분 자신의 지역구서 높은 선호도 10명 중 3명이 "지지 후보 못 정했다"

지역구인 여수(45.9%)를 중심으로 한 순천(30.3%)·보성(27.8%)·고흥(22.5%) 등 전남 동부권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.

이 의원도 지역구인 함평(44.0%)·영광(40.7%)·담양(37.9%)·장성(34.7%)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, 인근인 나주(20.5%)와 화순(30.2%)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다.

김 공동위원장은 뒤늦게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됐지만, 전 지역구인 담양(26.6%)과 장성(25.5%)·곡성(20.2%)에서 20%대의 지지율을 얻으며 비교적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.

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완도(50.8%)와 해남(26.2%)·진도(26.3%)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은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.

연령별로는 50대에서 박 의원이 20.8%, 주 의원 18.5%, 이 의원 15.5% 순으로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박 후보 20.3%, 이 의원 17.7%, 주 의원 15.1% 순으로 조사됐다.

50대와 60대 이상에서 선두를 달리는 박 의원은 의외로 20~30대 층에서도 25.1%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.

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지원 후보가 30.8%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, 이낙연 의원(16.0%)과 주승용 의원(17.6%) 간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민주당 후보 적합도

◇광주시장=민주당 후보 적합도(타 정당 지지자 포함) 조사에서는 이용섭 의원(35.7%)이 강운태 광주시장(31.4%)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지만,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강 시장이 56.5%로, 이 의원(25.5%)을 '더블 스코어'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민주당 경선에서 당원 50% 이상이 반드시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분석된다.

반면, 이 의원은 가칭 '안철수 신당' 지지층에서 45.7%의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, 강 시장(22.0%)을 2배 이상 크게 앞섰다.

이 의원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43.5%로, 강 시장(19.8%)을 앞서는 등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지지층에서 모두 강 시장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. '잘 모르겠다'는 지지 유보층은 22.1%로 조사됐다.

이 의원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43.5%로, 강 시장(19.8%)을 앞서는 등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지지층에서 모두 강 시장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. '잘 모르겠다'는 지지 유보층은 22.1%로 조사됐다.

시장 - 이용섭·강운태 오차범위 내 접전 지사 - 박지원 남녀·전 연령대에서 앞서

남성(31.6%)과 여성(31.2%)에서 고른 지지를 얻었다.

연령대별로는 강 시장이 20~30대에서 35.4%의 선호도로, 이 의원(29.0%)을 앞섰고,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는 이 의원이 30% 이상의 선호도로 강 시장을 앞질렀다.

◇전남지사=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28.3%로 1위, 이낙연 의원이 21.1%로 2위를 달렸다. 이어 주승용 의원이 17.9%, 김영록 의원이 8.6% 순이었다. '잘 모르겠다'는 무응답 층은 24.1%에 달했다.

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 의원이 32.8%로 가장 높았고, 이 의원 23.7%, 주 의원 16.9%, 김 의원 11.9% 순이었다.

박 의원은 남성(27.7%)과 여성(29.6%), 전 연령대에서 다른 모든 후보를 앞섰으며, 특히 20·30대(30.0%)에서 가장 높았다.

이 의원은 20·30대(17.2%)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20%대의 고른 지지를 보였고, 주 의원은 20·30대(12.7%)와 60대 이상(16.8%)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20%대의 지지를 얻었다.

안신당 후보 적합도

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'안철수 신당' 광주시장 후보로는 윤장현 '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' 공동운영위원장이 '독주'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윤장현 위원장은 '안 신당'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0.0%를 얻어 장하성 고려대 교수(21.7%)를 8.3% 포인트 차이로 여유있게 따돌리며 1위를 차지했다.

이는 윤 위원장이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'새정치추진위원회'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아 지역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하지만, 아직까지 '잘 모르겠다'는 무응답 층이 48.2%에 달했다.

이는 신당 창당 시점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데다, '신당' 후보가 향후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윤 위원장은 '안 신당' 지지층에서 50.1%의 지지를 받아 장 교수(25.6%)를 '더블 스코어' 차이로 앞섰다.

다만, '안 신당' 지지층에서도 2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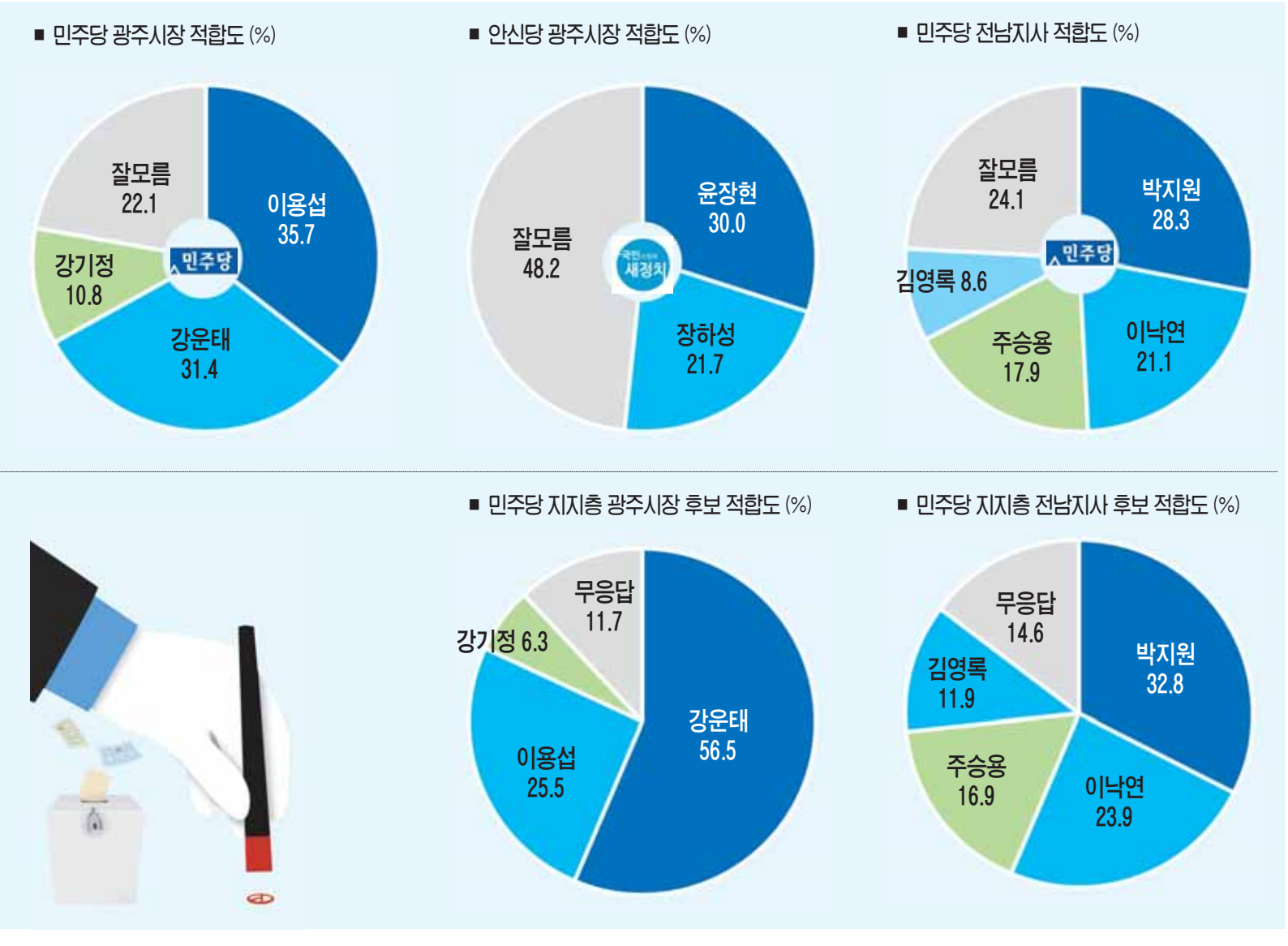
윤장현 광주 5개 구에서 고른 지지 '독주'

3%는 무응답 층이었다.

지역별로는 윤 위원장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30% 안팎의 고른 지지를 보이며 장 교수를 앞섰고, 동구에서는 윤 위원장과 장 교수가 각각 29.5%와 27.4%로 박빙을 보였다.

모든 연령층에서 윤 위원장이 장 교수를 앞섰고, 윤 위원장은 20·30대(34.3%)와 40대(32.7%)에서 10~15%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.

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

www.verygoodtour.com

소비자 → → 참좋은여행

광주의 참좋은여행은 지점입니다

대리점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인 여행, 참좋은여행

참좋은여행 광주지점은 여행객을 모아오는 대가로 9%의 수수료를 받는 대리점이 아닙니다.

200만원의 대리점 여행상품은 18만원의 수수료를 포함합니다.

우리 가족 4명이면 7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죠.

고객님의 귀한 시간, 맛있는 음식, 즐거운 경험 한번 더 누리시라고 참좋은여행 광주지점은 고객님의 72만원을 아껴드립니다.

참좋은여행 광주지점 을 이용하시면?

1

9%의 대리점 수수료가 없습니다

- 고객님께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판여행사 참좋은여행은 불필요한 대리점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

2

편리한 상담이 가능합니다

- 상무지구에 위치한 참좋은여행은 고객님께 쾌적한 공간과 친절한 상담을 제공합니다.

3

고객맞춤형 여행이 가능합니다

- 광주에서 출발하는 맞춤상품으로 고객님의 편의성을 도모합니다.

4

여행의 출발에서 도착까지 고객님의 즐거움을 책임집니다

- 여행 전, 여행 중 여행 후 까지 3번의 해피콜 서비스로 한번 한번 가족처럼 진심으로 모십니다.

5

한번고객은 평생고객입니다

- 고객께서 "좋다 좋다 참좋다!" 하실 때까지 참좋은여행 광주지점은 고객님의 행복을 함께합니다.

대한민국 직판여행사

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20 타워팰리스 401호
문의전화 : 062. 515. 7600

참좋은여행

- 농림
- 수협은행
- 세정아울렛
- 구영오피스텔
- 상무역